

농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농진청, '농가 현장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가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을 대상으로 '농가 현장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작을 가렸다.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은 농업 현장에서 수집한 환경, 생육, 생산량 등 정보(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통계적·재배학적으로 분석·정리해 농가에 제공하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컨설턴트)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이 농업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9개 도 농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을 대상으로 '농가 현장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작을 가렸다.

업기술원이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출된 10명이 참가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분석과 해결책

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자는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이다. 농업연구,

현장 지도, 농산업체 등 스마트농업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환경 및 생육 관리 이해보도 정보(데이터) 분석, 발표 역량 결과 완성도 등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베드향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과 농가 환류'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신자연 조사원이 받았다.

우수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혜빈 조사원(오이 생산량에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장려상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홍지영 조사원(파프리카 세 줄기 재배 성공 전략)이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신자연 조사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작물 재배와 정보(데이터)를 연계한 분석 결과가 농업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청구 법률지원 '맞손'

국민연금-법률구조공단, 협약... 이의서 작성 등 무료 상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부터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 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하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 벤치마킹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지난 19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방문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과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새만금청 내 MZ세대 및 저연차·신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혁신그룹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 등 직원 10여 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한킴벌리의 유연한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노력 등 현장에서 체험했다.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넓은 호칭 사용, 협업과 민첩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율좌석제 운영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가족·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예비부부 간담회 실시, 모성보호·출산 지원 등 노력에 공감하기도 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공, 홍수기 저수지 수위관리 집중

선제적 홍수기 대비, 현재 평균저수율 72% 이하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홍수기 동안 저수지 제한 수위를 정하고 저수지 수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홍수기 이전인 6월 초부터 저수지를 사전 방류해,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공사관리 저수지 총 404개소 모두 80%이하로 낮추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기에 대비하였다. 홍수기 동안 지속적으로 사전방류하여 19일 현재 도내 평균저수율은 72%로 관리하고 있다.



대하댐 방류 사진 또한 장비가 재난안전상황실을 가

동하고 배수장 가동상태 점검, 저수지 예찰활동 등 24시간 비상대비,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7월 18일 전북관내 10개지사 수해대응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배수장 가동태세 및 저수지 점검 등 홍수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좁은 지역 극한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저수지 지속적 사전 방류실시, 배수장 가동상태 수시점검 등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고향주부모임전북지회 고향사랑기부제 앞장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9일 고향주부모임전북지회(회장 김경리) 시군회장단이 농협은행 전북영업부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주부모임부산지회와의 교차기부로 각지의 지역에서 상호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향주부모임전북지회가 전달한 기부금은 전



전북농협은 고향주부모임전북지회(회장 김경리) 시군회장단이 농협은행 전북영업부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촌지역 살리기에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주신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와 부산시지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상호기부가 동농상생발전과 농산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산단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 설명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지난 19일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임대

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